

「충청 서해안 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유입과 문화변동」에 대한 토론

이종철

(전북대학교박물관)

본 발표문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중기의 주역인 송국리형문화와 후기의 주역인 점토대토기문화의 전환기~후기를 시간적 범위로, 보령 및 서천 지역을 아우르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범위 속에서 발표자는 문화변동이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두 문화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문화의 문화접촉 또는 문화접변적 양상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발표자의 전반적인 논지 전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하며, 세부적인 문제제기는 아래에 따로 부기한다.

첫째, 발표자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전환기적 배경 속에서 송국리유형과 수석리유형의 문화변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서해안 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혹은 수석리유형의 유입 배경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서해안 지역으로의 유입 및 전개 과정, 재지계와 외래계에 대한 개념 규정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린다.

둘째, 발표자는 송국리유형을 재지계로, 수석리유형을 외래계로 규정하였다. 본 발표문의 시간적 배경은 청동기시대 후기, 즉 점토대토기문화 혹은 수석리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재지계 : 외래계라는 대응 관계 및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석리유형이 시간적 · 공간적으로 한반도의 주역화된다는 측면에서 선주민 : 이주 정착민과 같은 시각의 용어 사용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재지계와 외래계는 청동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문화 주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에는 타당하지만, 이미 후기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까지 외래계로 보는 것은 문화 주체의 정체성을 아직 설정하지 않았거나 송국리유형의 문화적 관성 속에서 문화변동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부탁드린다.

셋째, 본 발표문의 핵심은 제4장 제2~3문단과 송국리유형 및 수석리유형의 특정 문화적 접촉 양상을 혼인 관계로 보는 것이다. 혼인 관계에 의한 문화접변적 양상은 인류학 분야에서 보편적으

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토론자 역시 혼인 관계에 의한 문화변동 존재 여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각 전환기와 특정 문화접변적 양상에는 이러한 관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거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인 관계에는 다양한 형태와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또 인적 교류가 혼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요소(모방토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혼인에 의한 인적 교류의 결과로 보는 것은 특수성을 너무 일반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서로 다른 집단끼리의 물물교환이나 기술 도입, 문화 충돌에 따른 포로(남자든 여자든)의 존재 가능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국리형문화 주변 지역(marginal culture)의 송국리형주거에서 공열토기나 구순각목문토기 등이 출토된다고 하여 이를 혼인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와도 같다. 혼인에 의한 인적 교류 외에 좀 더 논지를 확장·발전시켜 볼 수 있다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 만약 가능하다면 네 번째 질의 가운데 ④항과 연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넷째, 토론자는 발표문의 주제와 본뜻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따로 정리하였다. 발표자의 향후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동료의 마음에서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하니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① 보령 관창리 F지구의 방형계 주거(4, 6, 7, 8호)를 외래계 주거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임. 점토대토기 등 관련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송국리식토기를 비롯한 송국리형문화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임. 따라서 이 주거지들은 부여 송국리와 같이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순수 방형계 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서천 도삼리 취락은 탄소연대를 근거로 할 때 기원전900~750년, 기원전 600~400년으로 시기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수석리유형이 혼합되어 있음. 따라서 이 취락은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로 구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늦은 시기는 어느 시점부터 지속된 송국리유형 단계와 수석리유형 요소가 혼합되는 단계로 해석됨. 따라서 도삼리 취락은 2단계 또는 3단계의 전개 과정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발표자가 제시한 점토대토기 관련 유구로 지목한 3호 주거지는 기원전900~750년에 해당되며 출토유물도 점토대토기와 관련이 없는 주거지로 그 관련성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음.

③ 발표자는 모방토기를 절충토기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서로 다른 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는 토기의 기형과 문양요소가 한 개체에 공존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모방이라는 것은 방제(倣製: 예를 들면 방제경)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한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발표문에는 모방토기와 절충토기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를 통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함)

④ 발표자는 토착집단의 성격인 송국리유형과 외래집단의 성격인 수석리유형이 전략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것에 대해 송국리유형쪽은 수석리유형으로부터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제 V장 맺음말 위 6째줄). 그럼 과연 그들로부터 받은 선진문화는 무엇인가? (청동기, 불의 사용법, 주거 건축, 선진적인 토기나 석기??).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